

박셀바이오, 난치성 소세포폐암 임상연구 내년 착수

▶ 이제중 대표 화순바이오메디컬워크숍서 임상 계획 발표

<2022-12-16> 박셀바이오(대표 이제중)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주관하는 「화순바이오메디컬워크숍」에서 난치성 질환인 확장병기 소세포폐암 임상연구 계획을 16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박셀바이오는 2010년 설립된 항암면역세포치료제 연구개발 전문 기업이다. 자연살해(NK)세포를 이용한 Vax-NK 플랫폼, 차세대 항암면역치료제인 Vax-CARs 플랫폼, Vaxleukin-15를 포함하는 동물용의약품 플랫폼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이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Vax-NK 플랫폼이다. 주력 파이프라인인 Vax-NK/HCC는 진행성 간암을 대상으로 임상 2a 상 연구를 진행 중이다. 박셀바이오는 지난 9월과 11월 각각 대한종양내과학회 국제학술 행사(KSMO 2022)와 간질환 분야 세계 최대 규모 학회인 미국 간학회(AASLD)에서 'DCR(질병 조절률, Disease Control Rate) 100%'라는 획기적인 임상 2a 상 예비결과를 발표해 큰 주목을 끌었다. 이번에 발표할 확장병기 소세포폐암 임상연구 역시 Vax-NK 플랫폼의 Vax-NK 세포치료제로 진행한다.

폐암은 2020년 기준 한국인 암 사망률 1위로,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비소세포폐암(NSCLC)과 소세포폐암(SCLC)으로 나뉜다. 암세포의 크기가 큰 비소세포폐암은 조기에 진단하여 수술을 통해 완치를 기대할 수 있지만, 소세포폐암은 조기에 발견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급속히 성장하고 전신으로 전이가 잘 되기 때문에 예후가 좋지 않다.

소세포폐암은 제한병기와 확장병기로 나뉜다. 제한병기의 경우 암세포가 한쪽 흉곽과 주변 림프절에 국한된다.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확장병기는 전체 소세포폐암 환자의 70%를 차지하며, 5년 생존율은 1~2%로 매우 낮다.

박셀바이오 이제중 대표는 '의료 현장 아이디어 산업화의 실제 : Lung cancer(폐암)'라는 주제 아래 '자연세포를 이용한 난치성 소세포폐암 임상연구'에 대해 발표한다. 현재 국내 임상연구 현황과 제도에 대해 분석한 뒤, 박셀바이오가 준비 중인 임상연구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셀바이오 관계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Vax-NK/HCC 임상연구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만큼 내년 본격화할 소세포폐암 임상연구에서도 성과를 내기 위해 계획 단계에서부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